

# 사람 중심의 건축,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신임원장 인터뷰

## 1 지난 10월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의 6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uri는 건축 및 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 이래 건축도시 관련 국가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본계획 정비 등 살기 좋은 건축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토대가 될 여러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auri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연구심의위원과 연구자문위원으로서 auri의 연구과제 평가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auri 구성원들과 협력해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하며 건축의 사회적 역할,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정책제언도 함께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auri의 역할과 소임 그리고 과제를 미리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건축, 더 나은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auri의 비전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우리 시대에 건축·도시공간이 직면한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에 집중하며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건축, 더 나은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auri의 비전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우리 시대에 건축·도시공간이 직면한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에 집중하며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2 취임사를 통해서도 '미래사회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auri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위기·인구감소·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잘 조성된 건축과 도시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auri가 건축·도시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선도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가속화, 중소도시 쇠퇴와 빈집 증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인구·사회 분야의 주요한 변화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가속화, 친환경 기술과 빅데이터 전면 등장 등 기술·산업 관련 변화 ▲미세먼지뿐 아니라 감염병 같은 재해의 증가와 기후변화·환경오염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의 부각 등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미래사회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 분야별 정책연구를 수행하되,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개별 연구의 가치가 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활용가치 통합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 변화에 따른 공간 대응과 관련된 범부처 간 융복합형 국정과제와 협력적인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때 다자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연구원의 정책연구 방향과 내용을 통합해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auri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축·도시정책 제언을 내놓는 핵심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연구모임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고, 관련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앞으로 auri의 연구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uri는 도시재생 관련 법령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 마련과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간 진행하고 지원해 왔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지방소멸 위기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도시 전체를 재생의 단위로 보고, ‘축소도시’ 개념에 기반하여 재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소 단위의 현장형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auri 마을재생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IT(Do It Together)형 현장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주체와 함께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현장기반형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대도시 집중화나 지방중소도시 쇠퇴와도 맞닿은 이슈로, ‘삶의 질’ 과 ‘살기 좋은 도시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aur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지방도시의 환경 질 제고의 문제, 주거 문제 등은 건축·도시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auri가 공간복지 실현에 목표를 두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공공간 활성화와 지역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공공공간, 즉 보행로·자전거도로·공원 등의 가치를 알리고 이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해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주인인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 auri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거공간의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서 토지임대부에 기반한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정책·제도 연구도 필요합니다. 지역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청년의 삶터 또는 일터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자체 단위의 ‘빈집자산화은행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와 지원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5 취임식에서 auri 임직원에게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돼 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와 일에 지쳐 더 이상 그것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와 성과로 이어지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아 하는 연구와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맺어낸 노력의 결실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충분히 가치를 발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당부를 했습니다. 또 ‘권력자로서의 원장’이 아닌,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소통하는 ‘파트너로서의 원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수요 증가로 연구자 1인당 수행과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품질 관리에 힘쓰고, 이를 통해 직원 복지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품질 관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협의체를 구성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협의 체를 구성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올해 11월로 auri가 연구원으로 승격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aur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연구를 독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겁니다. 기존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더불어 연구원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연구관리와 경영체계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 지향적 정책연구,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강조했지만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변화, 안전사회  
요구와 같은 미래 변화와 이에 따른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면밀하게 예  
측하고 전문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정책 기획,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지원, 정책의 확산, 삶의  
질적 환경 개선, 모니터링과 제도의 재(再)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연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적용해야 ‘체감 가능한 삶의 변화’와 ‘살기 좋은 건  
축·도시공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uri 내부의 협력, 통합연구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일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5개 연구단과  
12개 센터로 운영 중인 연구원의 체계 안에서, 개별 연구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연구단과 센터 간 협력연구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장소 단위의 가  
치 통합형 연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또 공간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  
에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건축공간법제연구  
센터’의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연  
구단의 공통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auri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이터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